

목사와 성도의 책임

성경말씀: 벰전5:1-4

지난 열흘,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목사의 미성년자 성추문 사건(7월 31일 공식 해임) 지금까지의 성추문 사건: 주로 천주교, 은사주의 목사, TV 부흥사, 인본주의 교회 목사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뼈아픈 사건 고통을 당할 가족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국에서 독립침례교회가 시작된 것은 두 갈래; 성서침례교회(60년 전), 독립침례교회(20년 전) 한국의 독립침례교회에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목사만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의 심각성 어제도 뉴질랜드에서 편지가 옴: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목사들이 왜 이래요?” 날이 갈수록 바른 교회와 목사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김기찬, 김문수, 앞으로 신학원을 열면 목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려 한다.

베드로전서

주후 65년경, 로마의 극심한 박해, 불같은 시험, 성도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때에는 어느 때보다 더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쉽게 낙담하며 겁이 많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양들을 맡은 이후로 (요21:15-18)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4: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잘 정돈해야 한다. 신약교회는 감독과 집사라는 두 직분의 리더들을 가지고 있다(딤후3). 감독은 지역 교회의 목사 감독은 장로라고도 불렸으며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행20:17, 28, 딤후1:5-7).

목사의 자격

1.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1절)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해해야 함. 또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해야 함.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이 둘을 경험하였다.

현재의 목사들은 물리적으로 그런 고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 기록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목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진보해야 한다(딤후4:15).

날이 갈수록 설교와 성경 공부가 진보해야 한다.

2. 양 떼에 대한 사랑(2-3)

왜 그리스도인들을 양들로 표현할까?

1. 눈이 나쁘다. 2. 잘 속는다. 3. 잘 넘어진다. 4.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5.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6. 이기적이고 제멋 대로이다. 7. 방향 감각이 없다. 8. 방어력이 제로다.

그러므로 양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A. 양 떼를 먹이라

강도들과 악한 짐승들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좋은 풀의 목초를 찾아다녀야 한다.

말씀만으로 목회를 하리라고 굳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다.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양식의 전달

강해 설교를 해야 한다. 주제 설교: 웅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

B. 감독해야 한다.

목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양들 가운데 일원이다. 그러면서도 양들을 감독해야 한다. 성도와 목사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형제 교회와 일반 교회의 차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해야 한다.

목사의 직무가 의무가 되어 사람을 결박하면 목사를 그만 두는 것이 좋다.

C.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교회는 반드시 목사에게 합당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고후9; 딤후5:17-18).

그러나 목사의 직무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과도하게 사치하면 문제가 된다.

벤틀리 자동차: 돈을 거두어서 아이들을 위해 쓰면서 탐욕을 부리면 망하게 되어 있다.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독재하면 안 된다.

베드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선택한 소중한 자산 주인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 교인들을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면 안 된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학교를 간다. 그런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양들 가운데 심하게 목사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고 가정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교인들의 수가 늘어야 한다는 것에 눈을 돌린다. 각종 프로그램이 동원된다. 교회가 자란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독재를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의 특징: 엄청난 독재, 꺾 소리를 못한다. 심지어 휴가를 가는 것도 목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학대, 반노예 취급, 극도의 율법주의 목사의 말씀에는 순종해도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팬처럼 되면 안 된다.

성도들의 책임: 하나님과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이나 사람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

양 떼의 본이 되라.

양 떼를 몰 수는 없다. 목사는 양 떼 앞에 가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라. 섬기는 리더,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4. 주님의 약속

목자장계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재림의 소망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

목사는 여기서의 영광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성도들의 책임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만든다. 악한 목사는 나쁜 성도들이 만든다.

성도는 목사의 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행17:11).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호4:6)

성도들은 목사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갈6:6).

결론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회 바른 목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목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날이 갈 수록 풍성한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는 말씀 하나로 승부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목사는 결코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도들은 목사들을 존중해야 한다.